

작품 내용

제 목	우리 가족의 기증증서와 14년 후의 답장
내 용	우리 집 거실 한쪽에는 여느 집과 조금 다른 특별한 풍경이 자리 잡고 있다. 거창한 가훈도, 가족의 모습을 담은 단란한 가족사진도 아니다. 바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기증증서’ 한 장이다. 증서 한가운데에는 2012년 11월의 날짜와 함께 우리 가족이 저작재산권을 기증한 포스터의 제목이 또렷하게 적혀 있다. “K-POP의 가장 큰 경쟁자는 미국도, 일본도 아닌 불법다운로더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이 있다. 나는 소위 ‘밥상머리 교육’의 신봉자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날 우리 가족의 밥상머리 교육 주제는 바로 ‘저작권’이었다. 당시만 해도 저작권은 어른인 내게도 쉽지 않은 개념이었다. 더구나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인 아이들에게 무엇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던 기억이 난다. 그 무렵에는 ‘소리바다’ 시절부터 이어진 무단 다운로드가 여전히 낯설지 않았다. 클릭 몇 번이면 노래나 영화를 쉽게 내려받을 수 있었고, 그것을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았다. 나는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기 전에, 남이 만든 것을 왜 함부로 가져가서는 안 되는지부터 이야기해주고 싶었다. 마침 온 세계가 사이의 ‘강남스타일’에 열광하며 K-POP이 막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던 때였다. 당시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이던 우리 아이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나는 아이들과 식탁에 둘러앉아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던 ‘강남스타일’을 예로 들며 이야기를 꺼냈다. “만약 사람들이 사이 삼촌 노래를 돈 안 내고 몰래 불법으로 다운받아 들으면, 사이 삼촌은 다음번에 이렇게 신나는 노래를 또 만들 수 있을까?”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딱딱한 법률 용어 대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이야기는 식탁을 금세 열띤 토론장으로 만들었다. ‘도둑질, 공짜, 암체…….’ 그날 아이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말들이다. 그날 밤, 초등학생이던 첫째 아이는 식탁에서 나눈 이야기에 자신의 생각을 더해 일기장에 정성껏 기록했다. 그 일기는 얼마 뒤 ‘가족이 함께하는 저작권 포스터 대회’에 참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누구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닌, 우리 가족 모두의 생각이 담긴 첫 작품이 탄생했다. 우리의 즐거웠던 토론은 감사하게도 수상의 기쁨까지 안겨주었다. 그리고 공모전 조건에 따라 우리 가족은 작품의 저작재산권을 사회에 기증하는 데 흔쾌히 동의했다. 가족 네 사람의 생각을 모아 만든 창작물이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해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뻐다. 그렇게 받은 기증증서는 우리 가족에게 단순한 증서 이상의 의미로 남았다. 우리가 함께 만든 것을 사회와 나누었던 첫 경험이자, 지금까지도 자랑스럽게

간직하고 있는 작은 훈장이 되었다. 무엇보다 뜻깊었던 것은 아이들과 저작권을 말로만 이야기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식탁에서 나눈 생각이 하나의 작품이 되고, 그 작품에 우리 가족의 권리가 생기고, 다시 그 권리를 우리의 선택으로 사회에 나누는 과정까지 아이들과 함께 경험했다. 당시에는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꽤 괜찮은 저작권 교육을 해주었다고 생각했다.

14년이 흘렀다. 저작권 포스터를 그렸던 어린 딸아이는 그동안 수없이 그림을 그리고 지우며 자신만의 길을 찾아갔다. 직접 그린 그림을 판매하는 작은 사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하기도 했지만 그림을 놓지는 않았다. 그림을 향한 오랜 도전 끝에 공모전에 당선된 데 이어 웹소설을 웹툰으로 만드는 작업의 그림 작가로 정식 계약을 맺고, 지금은 첫 화를 그리는 중이다. 그런데 자신이 꿈꾸던 창작자의 길을 걷게 된 딸아이를 보며 대견함도 잠시, 우리는 디지털 시대 창작자가 겪는 현실을 조용히 맞닥뜨려야 했다.

얼마 전, 딸아이는 자신의 그림을 밑에 대고 그대로 선을 따라 그리는 영상을 발견했다. 영상 속 인물은 마치 자신이 처음부터 그려낸 것처럼 그 과정을 당당히 SNS에 올리고 있었다. 완성된 결과물만 비슷했다면 우연이라 넘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딸이 그린 선과 형태를 그대로 쫓아가는 과정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착잡했다. 화면 속에서는 단 몇 분 만에 새로운 그림 한 장이 똑딱 완성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그림의 바탕이 된 한 장이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몇 분으로 셀 수 없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 뒤에는 자신만의 그림체를 만들기 위해 쌓아온 수많은 시간과, 부모의 불안한 눈빛까지 감내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온 딸아이의 노력이 있었다.

속상해하는 딸아이의 곁에서 나는 14년 전 거실에 걸어두었던 기증증서를 다시 바라보았다. 14년 전 우리 가족은 누군가의 창작물을 ‘지켜주어야겠다’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오늘, 우리 가족은 창작자가 된 딸아이의 저작권이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다. 지켜주어야겠다는 다짐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돌아온 지금, 저작권은 우리 가족에게 더 이상 관념적인 법이 아니다. 저작권은 이제 창작자가 된 딸의 꿈과 노력을 지켜주는 현실적인 권리가 되었다.

돌이켜보면 그날의 밥상머리 교육에서 아이들이 배운 것은 어려운 법률이나 규제가 아니었다. 누군가 애써 만든 것을 함부로 가져가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노력과 삶을 온전히 존중하는 것이었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노래를 듣고 그림을 마주하는 일상의 식탁 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14년의 세월이 증명해 주고 있었다. 이제 저작권이 ‘어기면 처벌받는 딱딱한 규칙’을 넘어, 창작자를 향한 당연한 존중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어린 시절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운 그 소박한 존중은 먼 훗날 누군가의 꿈을 지켜주는 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보호를 받는 창작자가 14년 후의 내 아이, 혹은 우리의 아이일지도 모른다.

오늘도 우리 집 거실 한쪽에는 14년 전의 기증증서가 걸려 있다. 예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건넨 소박한 약속으로 보였던 그 증서가, 이제는 14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 돌아온 답장처럼 읽힌다.

‘우리가 타인의 창작물을 지켜줄 때, 그 마음은 언젠가 내 아이의 꿈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우리 가족이 14년에 걸쳐 받은 답장은 바로 그것이었다.